

2009. 6. 1 제216호

# 세계도시동향

## 목 차

### 문화·디자인

1. 시민 눈길 끄는 '도시의 빛' 공공미술 (로스앤젤레스)
2. 자전거 친화적 '기독교의 날' 행사 (독일 브레멘市)
3. 기업의 디자인 혁신 비용 지원 (북경)

### 산업·경제

4. 市 홈페이지에서 경기회복 정보 서비스 (필라델피아)
5.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기술을 위한 재정지원센터 개설 (프랑크푸르트)
6. '에코 금융 프로젝트'의 기획안 모집 (도쿄)
7. 취업난 해결 위한 아웃소싱 교육센터 건립 (북경)

### 건강·복지

8. 고령화 사회 대비한 노인간병지원상담소 개설 (베를린)
9. 시각장애인용 도심지도 개발 (브라질 상파울루市)
10. '봄에서 여름으로' 무료 산책 프로그램 진행 (런던)
11. 공공도서관 예산 삭감에 시민 모금운동 진행 (뉴욕)
12. 국민 모두 인터넷으로 소통하자 (독일)
13. 사회복지시설의 위기관리 가이드라인 작성 (도쿄)

## 목 차

### 행정·재정

14. 투명한 시정 약속

### 방재·안전

15. 경비대원이 학교 보호 (브라질 쿠리치바市)
16. 시민 참여형 종합방재 모범지역 10곳 선정 (상하이)

### 도시환경

17. 개가 마음껏 뿔 수 있는 공원 개장 (도쿄)
18. 녹지 우선 대상지역에 가로수 먼저 심기 (런던)
19. 오토바이까지 스모그 체크 확대 시행 (로스앤젤레스)
20. 이산화탄소 저배출의 경제성 홍보 (런던)
21. 질소산화물·이산화탄소 적게 배출하는 연소기기 인정제도 도입 (도쿄)
22. 물 부족으로 수도요금 인상 (북경)

### 도시교통

23. 과속방지 위해 '지그재그' 라인 도색 (버지니아州 Loudoun市)
24. 자전거 출근길, 市에서 도와 드립니다 (뉴욕)

### 도시계획·주택

25. 도시의 동서를 연결하는 대규모 철도공사 시작 (런던)

## 1. 시민 눈길 끄는 ‘도시의 빛’ 공공미술 (로스앤젤레스)

- 로스앤젤레스市 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앞에 설치된 ‘도시의 빛’(Urban Light) 공공미술이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음.
- 200개의 램프기둥이 배열돼 미술관의 또 다른 입구처럼 보임.
  - 램프기둥은 1920~1930년대 사용된 중고 주철로 제작됨.
- 날이 어두워질 때 일제히 불이 켜지면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함.



([www.nytimes.com/2009/05/03/arts/design/03fink.html](http://www.nytimes.com/2009/05/03/arts/design/03fink.html))

## 2. 자전거 친화적 ‘기독교의 날’ 행사 (독일 브레멘市)

- 독일 브레멘市는 2009년 5월 20~24일 제32회 ‘기독교의 날’(Deutscher Evangelischer Kirchentag) 행사를 개최함.
- ‘기독교의 날’ 행사는 ‘가톨릭의 날’과 함께 독일에서 가장 큰 종교 행사임.
  - 2년마다 한 도시를 선정해 종교 관련 사회적 테마들을 다루며 5일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함.

- 독일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과 부대 문화행사에 관심 있는 시민이 참가하는 대규모 도시 행사임.
- 브레멘市는 이번 행사를 친환경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市 교통부와 독일 자전거 협회 등과 ‘자전거 친화적 기독교의 날’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함.
  - 市는 이 프로젝트로 독일의 가장 권위있는 자전거 상인 ‘베스트 포 바이크’(Best for Bike) 상을 받음.
  - 이번 프로젝트는 친환경적인 대규모 행사의 훌륭한 모델로 평가받음.
- 브레멘市는 자전거 도로를 새로 만들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자전거 주차장도 충분히 마련함.
  -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행사를 기획하고 워크숍을 개최함.
- 독일연방 교통부는 브레멘市의 ‘자전거 친화적 기독교의 날’ 프로젝트의 결과와 경험을 자료화해 홍보할 계획임.

([www.bmvbs.de/-,302.1075207/Kasparick-best-for-bike-Gewinn.htm?global.back=/](http://www.bmvbs.de/-,302.1075207/Kasparick-best-for-bike-Gewinn.htm?global.back=/))

### 3. 기업의 디자인 혁신 비용 지원 (북경)

○ 디자인 혁신으로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북경市 과학위원회는 최고 1500만 위안(약 28억 원)의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임.

- 지원금은 주로 장비제조업체, 자동차업체, 전자제품업체의 디자인 혁신 개발 비용으로 쓰일 예정임.
- 한 가구생산 업체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북경 산업디자인 촉진센터를 통해 기술 수준이 높고 디자인을 강조한 상품 시리즈를 개발해 상품 판매량이 크게 늘었음.
  - 스포츠 용품사도 디자인 혁신 지원금을 받아 디자인한 결과 ‘창의적인 디자인 붉은 별’상을 수상하기도 함. 독특한 디자인으로 디자인 혁신 계획의 제2기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지속적인 혜택을 받게 됨.

(北京日報 , 2009. 5. 4)

### 4. 市 홈페이지에서 경기회복 정보 서비스 (필라델피아)

○ 필라델피아市는 2009년 5월 11일부터 '필라델피아 경기회복'(Philadelphia Recovery) 홈페이지 서비스를 시작함.

- 2009년에 제정된 미국연방 결의인 경기회복 및 재투자에 대한 내용으로, 시민에게 일자리 및 경제활동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득 가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시민과 경제활동 정보를 나누기 위해 개설됨.
  - 홈페이지에는 정기적으로 정부의 예산 배분, 경기회복을 위해 투입되는 새로운 자금의 분배와 사용, 일자리 및 실업급여 정보를 업데이트함.
- 필라델피아市는 많은 시민이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경제활동 기회와 지원을 받기를 기대함.

([ework.phila.gov/philagov/news/prelease.asp?id=550](http://ework.phila.gov/philagov/news/prelease.asp?id=550))

### 5.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기술을 위한 재정지원센터 개설 (프랑크푸르트)

○ 독일연방 환경부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센터를 프랑크푸르트市에 개설함.

-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환경기술에 관한 글로벌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가 독일에서만 40만 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 금융위기지만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기술 개발 지원은, 지속적이며 확실한 가치를 갖기 때문에 재정을 지원해야 함.
  - 지속가능성이 없는 형태의 경기부양책은 금융위기뿐 아니라 환경 및 기후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조정해나가야 함.

- 프랑크푸르트市는 현재 독일의 금융 중심 도시인데, 재정지원센터 설립으로 미래의 환경기술을 위한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됨.

([www.bmu.de/pressemitteilungen/aktuelle\\_pressemitteilungen/pm/43986.php](http://www.bmu.de/pressemitteilungen/aktuelle_pressemitteilungen/pm/43986.php))

## 6. ‘에코 금융 프로젝트’의 기획안 모집 (도쿄)

○ 도쿄都是 디젤차 규제 등 국가정책보다 앞서 선진적인 환경 정책을 실시해 왔음. 또한 세계에서 환경부하가 가장 적은 선진 환경도시를 실현하고자 노력 중임.

-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사업자와 도민이 쉽게 참여하게 하는 구조 구축이 필요함.
  - ‘에코 금융 프로젝트’는 사업자뿐 아니라 도민도 참가하여 환경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금융 구조를 활용하는 것임.
- 도쿄都是 都의 예탁금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기획(Scheme)을 제안받기로 함.
  - 금융기관, 예탁처 금융기관, 환경 배려 사업자, 예금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진행됨.
  - 도쿄都是 최초 금융기획의 제안자로 2009년 중 최대 70억 엔(약 100억 원)을 최장 5년간 예탁함.
- 금융기획은 환경 배려 사업자를 위한 예금상품과 예금자를 위한 예금상품 모두를 포함해야 하고, 환경 배려 내용이나 효과를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함.

([www.metro.tokyo.jp/INET/BOSHU/2009/05/22j57100.htm](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09/05/22j57100.htm))

## 7. 취업난 해결 위한 아웃소싱 교육센터 건립 (북경)

○ 2009년 5월, 중국 전역 20개 아웃소싱 시범 도시의 대표 및 상무부와 교육부 관련 공무원은 ‘아웃소싱 서비스 인원 교육센터에 관한 협의’에 공동으로 참여함.

- 아웃소싱 서비스 관련 인원을 신속하게 배출하고 중국 서비스 산업의 질을 높이는 한편, 대학생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임.
  - 이르면 5년 내 120만 명 정도를 배출하고, 매년 100만 명의 졸업생 취업난을 위해 중국 전역 20개 시범도시에 건립된 아웃소싱 교육센터를 인준할 계획임.
- 북경시는 아웃소싱 관련 서비스직 인원 배출 목표를 정함.
  - 2013년까지 북경시 전체 아웃소싱 관련 종사자 인원 20만 명을 배출하고, 5년간 아웃소싱에 필요한 인원 가운데 대학생 취업인구 5만 명을 흡수하기로 계획함.
- 아웃소싱 교육센터는 앞으로 대학교 내 취업준비센터 및 아웃소싱 기업 등에 필요한 인원을 위해 교육 및 실습을 지원해 줄 예정임.

([www.beijing.gov.cn/ggfw/tzz/tzdt/t1045034.htm](http://www.beijing.gov.cn/ggfw/tzz/tzdt/t1045034.htm))

## 건강 · 복지

### 8. 고령화 사회 대비한 노인간병지원상담소 개설 (베를린)

- 베를린시는 2009년 여름까지 노인간병지원상담소 24곳을 개설함. 노인간병지원상담소는 광범위한 정보망을 통해 간병이 필요한 노인과 가족에게 상담 등 다양한 도움을 주게 됨.
  - 베를린시는 최근 국가의료보험 및 간호보험공단과 함께 노인간병지원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
    - 매년 베를린시가 160만 유로(약 27억 원)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국가의료보험 및 간호보험공단이 지원하기로 함.
  - 베를린시는 노인간병지원상담소가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함.



- 베를린市에는 현재 400여 개의 양로원 등 노인간병기관이 있고, 9만 6000 명의 노인이 간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2020년에는 간병이 필요한 노인이 33% 증가한 12만 8000명이 될 전망이다.
- 노인간병지원상담소는 교회, 사회봉사단체와 협력해 운영하며 상담 외에도 노인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동행 서비스를 제공함.
- 베를린市는 2009년 말까지 각 지역구마다 2개씩 지원상담소를 설치하고 2011년까지 총 36개의 지원소를 설치해, 노인과 가족이 집 가까운 곳에서 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5/13/127765/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5/13/127765/index.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강도 높은 수발이 필요한 노인 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 들을 위해 재가보호(Community Care)와 Aging in Place가 강조되고 있고, 이 를 지원하는 지역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음.
- 베를린市의 노인간병지원상담소는 지역 거주 노인과 지역 내 돌봄 자원을 연 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중심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임.
-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나 미국의 Caregiver Resource Center, 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 등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어 수발 제공자를 지원 하는 해외사례가 대표적임.
- 서울시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되지는 못하지만 수발 지원이 필요 한 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현재의 지역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 재가 복지센터 등의 기능을 확대해 노인수발 지원을 위한 거점센터의 기능을 추가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김선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unjakm@sdi.re.kr)

## 9. 시각장애이용 도심지도 개발 (브라질 상파울루市)

- 상파울루市는 시각장애인이 길을 다니며 주요 건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각장애이용 점자지도를 개발함.
  - 시각장애이용 지도는 점자뿐 아니라 시력이 아주 약한 사람도 볼 수 있게 진한 글자로 크게 인쇄됨.
    - 유니다스 메들로 폴리따나 대학의 건축학과와 공동 개발했으며, 제작 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됨.
    - 지도 제작에는 2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도시 주변 위치를 재검토함.
  - 향후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노선도를 만들 계획이며, 모든 지하철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도를 설치할 계획임.

(www.estadao.com.br/geral/not\_ger353239,0.htm)

## 10. ‘봄에서 여름으로’ 무료 산책 프로그램 진행 (런던)

- 런던市가 운영하는 산책정보 홈페이지 ‘Walk London’은 ‘봄에서 여름으로’라는 주제의 무료 산책 프로그램을 2009년 5월 30~31일 진행함.
  - 매년 참가자 수가 많아져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행사별 집결 장소와 경로, 시간 등도 홈페이지에 게시함.
  - 런던市는 대표적인 6개 장거리 산책경로를 따라 총 350마일(약 56,3km) 구간에서 40개 무료 산책행사를 진행함.
    - 도심 산책경로인 주빌리 산책로(Jubilee Walkway)에서는 도심 관광지, 역사유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
    - 런던市의 그린벨트 지역을 관통하는 London LOOP 경로에서는 교외의 공원과 산야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함.
    - 런던市 남부 크로이든(Croydon) 지역에서는 노예 교역의 역사와 여왕의 관저인 윈저 성 감상을 함께 엮어서 역사와 함께하는 산책 행사가 열림.

(www.walklondon.org.uk/our\_events\_forthcoming.asp)

## 11. 공공도서관 예산 삭감에 시민 모금운동 진행 (뉴욕)

- 경기침체로 뉴욕市도 예산의 상당부분이 줄어들었고, 뉴욕 공공도서관 시스템 역시 5700만 달러의 예산 삭감이 있었음. 이는 전년 대비 22% 삭감이며, 943명의 직원이 구조조정 대상이 됨.
- 예산 삭감으로 뉴욕 공공도서관 시스템에 속하는 수백 개의 도서관이 운영시간 단축, 신규 임용 중단, 관내 아동 대상 무료 교육프로그램 폐지 등을 실시함.
  - 많은 도서관이 주 7일 개장에서 주 5일 개장으로 바꿈.
- 뉴욕 공공도서관 연합회에서는 시민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음.
  - 뉴욕市の 많은 공공 문화시설과 도서관은 시민의 자발적인 봉사와 성금이 시설 운영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공공도서관 시스템의 각 지역 도서관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물품이나 현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신청해 모자란 일손을 도울 수 있음.

(www.nypl.org)

(www.libraryjournal.com/article/CA6656778.html)

## 12. 국민 모두 인터넷으로 소통하자 (독일)

- 독일 연방 경제기술부는 인터넷 소외 인구를 끌어안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네트를 통해 함께’를 발족함.
- 독일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전체 인구의 2/3임.
  - 시골 거주자, 노인, 저소득층, 저학력자, 장애인 등은 여전히 인터넷 매체에서 소외돼 있음.
- 인터넷 사용은 정보화 사회를 살 수 있는 핵심적인 기본 능력임.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접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정치적 과제라는 취지임.

-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터넷을 처음 접할 때는 기술 대신 내용이 주가 되므로 가족 등 주변 사람이 도와주면 더 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음.
- 이니셔티브 ‘네트를 통해 함께’는 대상 그룹과 목적에 따라 다른 조치와 실천 방식을 가진 다음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함.
  - 체험 인터넷 프로그램 : 노인이 쉽게 인터넷과 친해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임. 노인보호 관련 업종인과 노인협회, 주거지 주변 사람들로 지원그룹을 형성해 노인의 개인적 관심과 욕구를 구체화하고 이 욕구에 따라 인터넷을 접촉하게 한 후 인터넷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임.
  - 인터넷 협력관계 프로그램 : 인터넷 사용자가 무경험자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프로그램임. 개인적으로나 직업상 관련된 사람들을 연결해 공동의 관심 주제를 인터넷을 통해 경험하게 한 후 인터넷 사용의 다른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식임.
  -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 사회봉사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민자, 장애인, 시골 거주자, 교육에서 소외된 여성과 청소년에게 인터넷을 가르치게 하는 프로그램임.

([www.bmwi.de/BMWi/Navigation/Presse/pressemitteilungen,did=300850.html](http://www.bmwi.de/BMWi/Navigation/Presse/pressemitteilungen,did=300850.html))

### 13. 사회복지시설의 위기관리 가이드라인 작성 (도쿄)

- 도쿄都是 ‘사회복지시설의 위기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시설 경영의 건전화 및 운영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과 직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촉진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주로 노인복지시설)에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임. 하지만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의 위기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축적하는 작업은 실시되지 않았음.
  - 가이드라인은 5개 시설을 실제 모델 사업으로 선정해 검증한 결과를 근거로 작성함.

- 각 시설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함.
  - 보고 제도, 위원회, 연수, 가족과의 파트너십, 노인 돌봄 기록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설함. 각 분야의 시설 수준(1~5단계)을 체크하고 다음 수준으로 향상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함.
  - 분야별 대조표를 작성해 각 시설의 수준을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5/20j5b4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5/20j5b400.htm))

## 행정 · 재정

### 14. 투명한 시정 약속 (런던)

- 런던시는 2009년 5월 9일 연례토론회인 ‘시장과의 대화’(State of London Debate)를 열고, 도시안전·교통·기업 환경·녹색도시·다문화 도시 등 5대 주제로 세부 토론을 진행함.
- 런던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재정 투명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함.
  - 부시장의 직무 성격과 조건, 보수를 비롯하여 시장 자문위원회에 대한 상세 정보를 런던시 홈페이지에 공개함.
  - 런던시 예산 중 1000파운드(약 192만 원)를 초과하는 모든 집행건은 공고하고 있음.
  - 낭비되던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껴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복 교통경찰 440명 투입에 쓰는 등 별도 예산 확대없이 현안과제를 해결해 왔음.
- 런던시는 토론회에 앞서 지난 1년간 런던시정을 요약·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에 공개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1980](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1980))

([www.london.gov.uk/stateoflondon](http://www.london.gov.uk/stateoflondon))

## 15. 경비대원이 학교 보호 (브라질 쿠리치바市)

○ 쿠리치바市는 시립학교 치안 강화를 위해 학교 보호 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음.

- 각 학교마다 최소 1명 이상의 市 경비대원이 24시간 보초를 섬.
  - 전문교육을 받은 市 경비대원은 학교 앞이나 인근 도로에서 교통정리, 학생의 안전 도모, 지역활동 참여, 지역사회 안전 자문위원 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함.
  - 경비대원의 활동으로 학교 내 사고 및 범죄가 실제 감소함.
  - 교사와 직원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긴장한 경비대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함.
- 한편, 市 교육국과 사회보호국은 정기적으로 학교 보호 서비스 활동을 하는 경비대에게 아동·청소년 범죄, 예방법, 심리학, 권리와 의무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5453](http://www.curitiba.pr.gov.br/Noticia.aspx?n=15453))

## 16. 시민 참여형 종합방재 모범지역 10곳 선정 (상하이)

○ 상하이市가 2009년 말까지 종합방재 모범지역 10곳을 선정할 계획임. 중국 경제발전 5개년 계획 기간인 2006~2010년에 종합방재 모범지역 1000곳을 선정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정책에 따라, 상하이市가 2009년 처음으로 선정하는 것임.

- 관련 부서별로 추진됐던 재해 예방사업이 앞으로 지역단위로 특성화해 주민 참여를 높일 계획임.
  - 구체적으로는 안전지역, 안전마을, 위생응급 모범구, 과학 보급 모범지역, 민방 마을, 적십자 모범지역 등으로 ‘모범 지구’가 지정됨.
- 종합방재 모범지역 선정기준은 거주민이 2000여 가구이며, 뉴타운의 경우 입주율이 약 80%여야 함.

- 지역방재 현황에 대한 거주민의 만족도가 70% 상회해야 함.
- 최근 3년간 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함.
- 체계적인 방재관리기구, 응급조치 방안 및 훈련 여부, 재해 예·경보시스템 및 설비 구축 여부, 방재의식 정도 등이 평가 대상임.

([www3.xinhuanet.com/chinanews/2009-05/13/content\\_16506720.htm](http://www3.xinhuanet.com/chinanews/2009-05/13/content_16506720.htm))

## 도 시 환 경

### 17. 개가 마음껏 뒹 수 있는 공원 개장 (도쿄)

○ 도쿄都是 2009년 5월 23일부터 키바(木場) 공원에 반려견과 함께 산책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도그 런 파크’(Dog Run Park) 공간을 개장함.

- 일본에서는 반려견 동반 산책에 대한 불평 및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공원에서 자유롭게 놀게 하는 공간으로 지정돼 설치되고 있음.
  - 설치면적은 2040㎡로, 펜스를 설치해 그 안에서 이용규약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놀게 함.
  - 도그 런 설치와 함께 개 주인의 매너 향상교육과 애견교육 등도 실시할 예정임.
- 도그 런 시설은 근린 주민과 공원 이용자의 이해를 얻어, 애견을 데리고 온 방문자와 그렇지 않은 방문자의 공존을 도모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5/20j5c2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5/20j5c200.htm))

#### >>> 전문가 검토의견

- 일본에서는 핵가족화, 노령인구와 독신자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애견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주택가에 도그 런 공원을 다수 설치해 운영해 왔고 이를 확대하고 있음.
  - 애견의 배설물, 소음 발생, 질병 유포, 공격 가능성 등의 우려로 일부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 펜스로 구분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용상의 충돌을 줄이면서 애견 주인에게도 편의를 제공함.
- 최근 개최한 상상오아시스 실현회의에서 도그 런 공원 제안을 일부 수용하여 서울시내에서 설치 가능한 공원을 모색한 후 소규모로 우선 시도하기로 함.
- 외국인을 비롯해 애견 이용이 높은 공원 위주로 차츰 적용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함께 위험개의 별도 등록, 광견병 예방접종 의무화, 애완동물 관련 개별법 정비 등 애완동물 관련 제도도 마련해야 할 것임.

/김원주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wjkim@sdi.re.kr)

## 18. 녹지 우선 대상지역에 가로수 먼저 심기 (런던)

- 런던市는 2009년에도 상대적으로 녹지가 적은 지역 40곳을 우선 선정해 100~400그루를 중점적으로 식재할 계획임.
- 민간단체가 좌장을 맡은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채택한 우선 녹색화 지역 40곳에 가로수를 식재해 지난 1년 동안 1400여 그루를 심음.
  - 가로수 식재 위치는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임.
- 현행법상 개인이 직접 가로수를 심을 수 없지만, 시민이 집이나 직장 옆에 가로수를 심어달라고 신청하면 적극 식재할 계획임.
  - 런던시민이면 누구나 런던시장이 운영하고 있는 가로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선 대상 지역인지 확인하고 등록절차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면 됨.

(www.london.gov.uk/streettrees)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1920)



## 19. 오토바이까지 스모그 체크 확대 시행 (로스앤젤레스)

○ 로스앤젤레스市는 트럭이나 자가용에만 적용되던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제도 (Smog Check Program)를 오토바이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임.

- 대상은 2000년 이후에 제작된 모든 오토바이로, 2년에 한 번씩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함.
- 2009년 2월 말 상원에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시행 후 대기오염을 줄이고 주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오토바이 판매업자나 제조회사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州 대기환경국은 스모그 체크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되면 매일 대기로 진입하는 오염물질이 약 5.2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www.latimes.com/news/local/la-me-smog-motorcycles5-2009may05,0,6008850.story](http://www.latimes.com/news/local/la-me-smog-motorcycles5-2009may05,0,6008850.story))

## 20. 이산화탄소 저배출의 경제성 홍보 (런던)

○ 런던시장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C40 기후 정상회의'(C40 Climate Summit)를 통해 런던市의 이산화탄소 저배출의 경제성을 홍보함.

- 런던市는 2025년까지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0%를 줄일 계획임.
  - 이산화탄소 저배출 관련 산업이 수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에 영향을 주고 있음.
- C40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의견을 서로 나누고 이와 관련된 그린칼라(Green Collar)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경기침체 시기에 일자리 창출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런던시장은 기후변화를 막는 노력이 1만 50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057](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057))

## 21. 질소산화물·이산화탄소 적게 배출하는 연소기기 인정제도 도입 (도쿄)

- 도쿄都는 지구온난화 대책 강화를 목표로 2008년 6월 환경 확보 조례를 개정함. 여기서 규정된 새 제도가, 소규모 연소기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2009년 3월 제정한 ‘저NO<sub>x</sub>, 저CO<sub>2</sub> 소규모 연소기기 인정제도’임.
- 기존 저NO<sub>x</sub> 성능 기준에 에너지 절약기능을 추가해 ‘저NO<sub>x</sub>·고효율 연소기기’를 인정하고, 환경성능이 뛰어난 연소기기 보급을 확대하고자 함.
-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자 에너지효율의 기준은 고효율과 초고효율로 나눔.
  - 고효율은 연소기기 개량으로 최고도의 효율 성능을 달성한 연소기기임.
  - 초고효율은 고효율 연소기기에 배열 회수장치 등을 설치해 더욱 더 효율을 개선한 연소기기임.
-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5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3/20j3n7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3/20j3n700.htm))

## 22. 물 부족으로 수도요금 인상 (북경)

- 북경市는 2009년 5월 10일 ‘도시 물 절약 캠페인’을 열면서 2010년까지 절수형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힘.
- ‘남수북조 프로젝트’(물이 풍부한 남쪽에서 북쪽으로 공급해주는 프로젝트)의 지연에 따른 물 부족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기로 함.
  - 북경市의 평균 수도요금은 2001년 1m<sup>3</sup>당 3.01위안(약 600원)에서 네 차례 인상해 현재 5.04위안(약 1000원)임.
- 수도 요금 인상 이외에도 물 절약을 강조하고, 관련 법령도 마련할 예정임.
  - 물 소비 정액관리를 실시하면, 절수기를 보급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할 예정임.

- 물 절약 정책 실시 이후 수자원 구조가 2001년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임.
  - 재생수 사용량도 2008년 6억m<sup>3</sup>에 달해 북경市 전체 용수량의 17%를 차지하는 등 최근 몇 년간 북경市의 용수절약 성과는 매우 높게 나타남.

(北京日報, 2009. 5. 11)

## 도 시 교 통

### 23. 과속방지 위해 ‘지그재그’ 라인 도색 (버지니아州 Loudoun市)

○ 버지니아 교통국(Virgi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은 안전운전 캠페인으로 Loudoun市 벨몬드 릿지 인근 도로의 내리막길 152m을 지그재그 라인으로 도색함.

- 자동차 운전자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지만 지그재그 라인을 보면서 집중력을 높이고 속도를 감속해,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음.
  -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영국과 호주에서 성공적인 효과를 거둠.



- 지그재그 선 도색으로 실제 얼마나 속도가 감속되는지 관찰해 효과적일 경우 더 많은 도로에 지그재그 라인을 도색할 예정임.

(www.wtop.com/?sid=1654423&nid=732)

### >>> 전문가 검토의견

- 노면 표시를 통한 과속방지 등 교통안전 대책은 외국 도시에서 최근 많이 시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함.
  - 서울시 대부분의 도로는 교통혼잡으로 차량속도가 낮고 교차로 간 거리가 길지 않아 필요성이 낮기 때문임.

- 향후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가 갖춰지고 인식이 전환된다면 위와 같은 교통 안전 대책이 필요해질 것임.
- 서울시도 도로구간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노면표시와 같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높게 둘 수 있음.
-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면서 점진적으로 조치를 확대해야 할 것임.

/고준호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jko@sdi.re.kr)

## 24. 자전거 출근길, 市에서 도와 드립니다 (뉴욕)

- 뉴욕市는 자전거 통근 및 통학자를 위해 수백 마일에 달하는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만들 계획임.
- 최근 뉴욕市에는 자전거 통근자가 크게 증가함.
  - 자전거 통근자는 총 18만 5000명으로, 2005년의 11만 3000명, 1992년의 7만 5000명에 비하면 폭발적인 수준의 증가임.
- 뉴욕市는 최근 3년 새 200마일 이상의 자전거 도로를 신·개축하였으며, 620여 개의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확충됨.
  -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신호체계와 안내판 등의 시설 확충을 병행해,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할 수 있도록 배려함.
- 뉴욕市 대중교통국은 향후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시민의 건강 증진, 친환경 교통수단 강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자전거 통근자의 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함. 이에 따른 시설 신축·유지·보수에 관심을 집중할 계획임.

(www.nbcnewyork.com/news/local/More-New-Yorkers-Shifting-Gears-for-Morning-Commute.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 자동차산업에 의한 세계 경제수도라 불리는 뉴욕시는. 1990년대부터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 도시로 전환해 인간적 도시문화를 되찾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 결과 현재 뉴욕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에 의한 도시 이동률은 29%에 육박함.
  - 뉴욕시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를 정비할 뿐 아니라, 자전거 이용 편리를 위해 주거지와 직장, 생활 편의시설 등에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 뉴욕시는 'PLANYC 2030' 비전을 'Greenner, Greater, Buildings Plan'으로 하고, 1800마일 자전거 도로 종합계획을 기획해 그린웨이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서울시는 최근 자전거 관련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으나, 주로 자전거 매니아와 자전거 출퇴근자에게만 한정되는 경향이 있음.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시민의 자전거 생활문화의 기초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함.
  - 시민이 생활 주변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고, 주거·직장·생활편의 시설 등에 주차시설을 확충하며, 도난방지 시스템 개발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홍석기 창의시정본부 연구위원(skhong@sdi.re.kr)

### 한 줄 뉴스

- 뉴욕
  - 시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주변 공원 정보 서비스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시
  -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연구위원회 구성
- 중국
  - 최첨단 기술 개발로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약 12조 원 집중 투자 계획

## 도시계획·주택

### 25. 도시의 동서를 연결하는 대규모 철도공사 시작 (런던)

○ 2009년 5월 15일 런던市에 건설되는 최초의 새로운 철도인 크로스레일 (Crossrail) 시공식이 열림.

- 크로스레일은 2017년 개통되며 런던의 동서를 연결함.

· 카나리 와프(Canary Wharf), 리버풀 역(Liverpool Station), 패딩톤 역 (Paddington Station), 히드로 공항(Heathrow Airport) 등 주요 역과 시설 물을 연결하게 됨.

- 크로스레일이 단지 교통흐름을 빠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런던의 경제 활성화와 수천 개의 일자리 약 400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037](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037))

## 한 줄 뉴스

### ● 상하이

- 지린성을 지나 북한 칠보산 지역을 잇는 철도관광 노선 개설에 합의
- 2010년 세계 엑스포 개최 앞두고 조성 중인 엑스포 공원 곧 완공 예정
- 2011년까지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디자인 패션 센터' 건립

### ● 런던

- 창조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도시 홍보 전략 수립
- 실직자 2만여 명의 직업교육과 기술 제공에 약 460억 원 투자 계획